

대·중소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②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멘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인 진화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와 공동기획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안전성 쑥·불량률 푹... 스마트 공장 덕에 ‘행복한 일터’ 됐죠”



고미선
으뜸올푸드 대표

근로자 전원이 중증장애인
공정 자동화로 사고율 급락
최상급 황태 생산에도 한몫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으뜸올푸드는 황태, 황태포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사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근로자 전원이 중증장애인인 이곳은 일하는 즐거움이 행복한 일터를 추구하고 있다. 2011년 황태 임가공을 시작해,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이 으뜸올푸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실적에 포함된다.

고미선 대표가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는 “근로자 12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황태타발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었다”며 “직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지원사업 신청 당시를 회상했다.

먼저 타발공정에서는 근로자가 황태 꼬리를 레일에 끼우는 작업만 하면 프레스가 자동으로 황태를 압축하는 설비가 도입됐다. 창고 보관대 등이 맞춤형으로 설치 됐고, 황태 사이즈 측정이 가능한 지그도 제작됐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생산성은 놀랍도록 좋아졌다. 황태자동타발기 도입 시간당 180개에서 800개로 1인당 생산성이 440%나 상승했고, 작업환경

도 자동화되면서 안전해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제조공정관리와 노하우를 전수해준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으뜸올푸드가 판매하는 황태포, 황태채는 100% 노랑태다. 노랑태는 말 그대로 노르끼리한 색이 곱질과 속살에 도는 황태(黃太)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은 북한 지역인 함경도 원산이 노랑태로 유명했는데, 한국 전쟁이후 함경도 월남인들이 대관령에서 노랑태를 재현한 것이 지금의 황태다.

황태는 “바다가 낳고 하늘이 키운다”고 할 정도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겨울이 너무 추워도, 너무 따뜻해도 좋은 황태를 얻을 수 없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황태 중 국내산은 3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으뜸올푸드가 판매하는 황태제품은 100% 인제 용대리산 황태로 강원도의 기후가 만들어낸 선물이다. 삶은 스펀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방망이로 인위적으로 두들긴 것이 아니다. 강원도의 기후가 수개월간 얼리고 녹이길 반복해 자연스럽게 부들부들해진 최상급 황태다.

황태는 명태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 성분들이 응축된다. 단백질은 4배나 증가하기에 고단백의 대표주자인 닭가슴살, 소고기에 비해 100g 당 단백질 함유량이 2~7배 많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매우 적어 다이어트식으로 적합하다.



김명신
쿠키아 대표이사

수기작업으로 불량률 상승
스마트화로 균일품질 유지
미·일 등 해외수출도 성사



쿠키아는 전남 여수시에서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김명신 쿠키아 대표이사는 수기로 작성된 데이터 관리와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됐다. 또한 판매량이 늘어가면서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고, 불량률이 증가한 것도 지원계기 중 하나다.

평소에도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여를 노력했지만 제품 불량률은 발생했고, 대량생산으로 발전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는 균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었고 불량률도 낮춰졌다. 불량률은 1.8%에서 0.2%까지 낮아졌다. 90%나 개선된 것이다.

제품일기도 7.6% 절감했고, 계획 대비 실적달성률도 100%를 기록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해져 더욱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다. 대기업 유통사에 납품·판매를 할 수 있게 됐고,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수출로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제품 생산성 증대, 납기 준수율 등 수 치로 보이는 부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효율도 올라가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다른 기업들에도 스마트 공장 도입을 적극 추천했다.

쿠키아가 생산하는 ‘푸부과자’는

100% 국내산 두부로 만든 두부과자이다. 두부라는 전통 식재료를 현대식으로 해석해 새로운 간식거리를 만들어냈다. 건강과 맛을 다잡아서 과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깬다. 두부가 35%나 들어가 있어 담백한 과자를 오븐에 한번 더 구워 담백함과 고소함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담백하면서도 아몬드와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좋은 기름을 사용해 비식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갖이 추가된 ‘갓푸부과자’는 임금진 진상품이었던 여수 돌산의 갓만 사용한다. 갓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김 대표는 “푸부과자”는 커피, 우유, 맥주 모두에 잘 어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라고 말했다.

2016년에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과 함께 차별화된 제조 방법과 생산라인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면서 위생도 잡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 결혼이민자와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집단소송·징벌적손배는 기업·국가에 악영향...보완 필요”

경총,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 지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인과 소송을 당한 기업에 실제 입증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달 입법 예고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집단소송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길을 열어주고,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제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과 선행 당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조언했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배 배상제를 도입할 때 2~3배 한도로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영 상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IBK-항공카드, 너만 있으면 안심!

카드 앞·뒷면 항공권을 코팅

항공성 99.9%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 발급대상: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Mastercard / UnionPay 1만2천원, BC(국내선) 1만원

건강지킴이 · 항공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대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알림톡 등 활용해 비대면으로 보험업무 간편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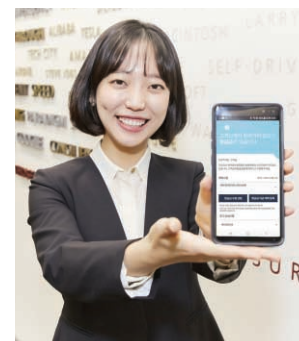
기업 AD

삼성화재 ‘스마트링크 서비스’ 다양한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삼성화재는 최근 비대면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스마트링크 서비스’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스마트링크 서비스’는 회사가고객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포함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 처리하던 업무들을 모바일을 활용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객은 ‘스마트폰 전자서명’과 청약서부분 또는 약관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전달 서비스’와 같은 보험가입 업무처리 외에도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변경과 같은 보험계약 관리 업무와 자동

차 사고로 인한 보상의 업무처리, 만기·중도 환급금 및 휴면보험금 신청 등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비스 확대를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는 고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를 받고,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객들은 스마트링크 서비스로 회사가 전달하는 다양한 알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상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 전자서명을 통한 합의서 작성, 손해보험 청구서류 발급 등의 업무처리도 스마트링크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정비업체 안내, 자동차 보상상식 퀴즈, 보상처리 절차안내 콘텐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